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교체에도 혼란 지속

동산화합승가회 문제제기에
前주지 경선 스님 전격사퇴
차기주지에 보운 스님 임명
승가회 측 여전히 반발지속
8월 30일 문도대회 예고도

송지희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산화합승가회는 8월 14일 창원 성주사에서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대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의 구심점인 금정총림 범어사가 동산문도회 내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내홍은 일부 동산문도를 중심으로 출범한 동산화합승가회가 前주지 경선 스님에 대한 소통부재 및 각종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경선 스님이 즉각 자진사퇴를 결단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동산화합승가회가 차기주지 보운 스님 지명에 재차 반발하면서 문도대회까지 예고해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산화합승가회(이하 승가회)는 8월 14일 창원 성주사에서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대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보운 주지 스님의 차기 주지 지명은 파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승가회는 8월 30일 오후 2시 범어사에서 문도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하고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 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동산화합승가회는 "타종단 스님의 원주 소임 임명으로 총림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문중의 안배와 대중 공의 없는 총림 운영으로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前주지 경선 스님의 해임결의서를 전달했다"며 "그러나 경선 스님의 사임에 따른 후속 논의에서 모든 스님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방장 지유 스님이 보운 총무국장을 차기주지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동산문도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비공개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결의 내용과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동산화합승가회는 "방장 지유 스님은 동산혜일대종사 유업인 청정교단설립의 정화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주지 보운 스님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동산화합승가회가 보운 스님에 대해 문제삼는 대목은 건당제자라는 점이다. 스님들은 "범어문도는 타문중 건당제자인 보운 스님의 총림주지 소임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금번 사태의 책임자인 경선, 현암사미와 보운, 범종, 원여 등 문중질서 파행에 관여된 자는 모두 문도에서 제명하고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고문은 동산 스님의 1세 상좌 스님, 지도위원은 출가 연도 1950년도부터 1979년도인 범어사 재적 스님으로 구성된다. 상임대표는 종훈 · 정여 · 수불 · 원정 · 상화 스님이며 공동대표는 범산 · 상운 · 정현 · 화랑 · 원범 · 현정 · 우담 · 초안 · 원타 · 순행 · 묘선 스님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은 선재 · 법안 · 정산 · 혜성 · 대방 · 혜진 · 각명 · 공마 · 범일 · 종인 · 법운 스님이, 사무처는 도관 · 강하 · 정오 · 경흥 · 각진 · 범천 스님이 맡는다.

승가회 주장에 대해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혼란한 상황에서 前주지 스님이 사임하고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장스님께서 총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제게 주지를 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실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님은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지만 총림의 법통을 상징하는 방장 스님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총림을 외호할 책임이 있는 소임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히 종헌종법상 하자가 없는 주지 임명을 문제 삼아 철회를 요구하고 저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나 비위 문제도 아닌, 단지 '건당제자'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승가회가 문도대회까지 불사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가회 대변인 석산 스님은 "승가회 모두 범어사를 고향처럼 여기기 때문에 서로 생채기를 주는 모습은 지양하고 싶다"며 "내부적으로 소통을 위한 대화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화합을 위한 소통이 있다면 언제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변인인 도명 스님 역시 "대중공의는 절집에서 중요한 원칙임에도, 현 집행부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득권을 통해 대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다만 한국불교와 부산불교의 이미지를 우리도 함께 걱정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 의혹해결을 위한 기구를 마련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만의 여름캠프에 환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8월11~14일 영부디스트

한국 불자대학생들의 원력을 느낄 수 있는 영부디스트캠프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석주, 이하 대불련)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통도사 및 청도 운문사 일대에서 '제13회 KBUF Young Buddhist Camp'(영부디스트캠프, 이하 캠프)를 개최했다.

'다시 만난 우리, 함께하는 청춘'을 주제로 열린 이날 캠프에서는 총 90여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포교부장 선업 스님을 통해 "대학생 불자들은 무한한 역량을 지닌 미래세대다. 진정한 불자로 도반들과 정진하며 희망의 길을 찾자"고 응원했다. 변대용 대불련 총동문회장과 주윤식 중앙신도회장도 입재식에 참여해 대학생 불자들을 격려했다.

조석주 대불련 회장은 "오랜만에 열린 캠프에도 90명이 넘는 법우들이 모여 기쁘다. 영캠프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단합하고 정진하는 대불련이 되자"고 말했다.

이번 영캠프에서는 청춘강연, 통도사 운문사 순례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출발일 : 2022년 11월 1일~12일 동참금 : ₩2,990,000


녹야원

부다가야

항하사

나란다대학터

영축산

죽림정사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기원정사

타지마할

델리문화탐방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샬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백중 맞아 가사공양 공덕으로 효 실천

봉선사, 8월 12일 '제10회 우란분절 공승법회'

사중스님에 가사공양
회주 밀운 스님 법어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우란분절을 맞아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에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선망부모를 천도하고 깨달음을 이끄는 법과 가르침에 감사를 올리는 뜻깊은 법석을 마련했다.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는 8월 12일 경내 청평루에서 제10회 우란분절 공승법회를 봉행했다. 봉선사 공승법회는 과거 사은법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으나, 2006년 사찰 차원의 가사불사가 사라지면서 중단됐다. 2020년 주지 초격 스님이 전통을 잇고자 원력을 세워 다시 재개됐고, 올해로 꼭 10회째다.

애초 하안거 해제법회와 함께 봉행해 안거를 해제한 수좌스님과 대중 스님 모두에 가사공양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엔 보림선원이 보수공사로 운영되지 않아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과 주지 초격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 30여명만 참석했다.

이날 봉선사 신도회는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대중 스님들에게 가사를 비롯한 공양물을 올렸으며, 회주 밀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란분절의 참의미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법문을 내렸다.

공승법회는 대령과 관욕의식, 괘불 상단불공 및 헌공, 축원, 반야심경 봉독 등 1부 행사를 시작으로 2부부터 본격적인 의식을 진행했다. 법회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우란분 가사공양, 공승례, 우우란분경 독송, 주지 스님의 인사와 밀운 스님의 법어 등으로 이어졌다.

김남명 25교구신도회장과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회 임원들은, 대중 스님들을 위해 마련한 종단 가사를 공양하는 공승례를 올렸다.

이어 스님들은 공양받은 가사를 수하며 중생을 위한 회향을 다짐했고 대중은 불설우란분경을 봉독하며 의미를 기렸다.

회주 밀운 스님은 법어에서 진공묘유의 가르침을 알고 실천토록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불자들 모두 이를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며 "오늘 공승법회의 공덕과 실천행으로 불자들 모두가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초격 스님은 봉선사의 공승법회 전통을 재차 강조한데 이어 그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오늘 공승법회를 통해 모두가 삼보에 귀의하는 예경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 불제자로서 삼보를 외호 · 공경하는 가운데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 봉선사=송지희 기자

백중기도 회향, 전국사찰 방생 · 자비나눔 눈길

백중 회향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자비나눔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구례 화엄사**는 8월 12일 경내 각황전에서 자비나눔 백중 공양미 300포를 구례군에 전달했다.

이날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이 정진하는 동안 모인 공양미를 지역민에게 회향하고자 한다. 행복한 구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백중 공양미를 전달받은 김순호 구례군수도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 공양미를 관내 저소득 가정 및 복지시설에서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사찰에서도 백중기간 모인 공양미를 회향하는 자리가 연달아 마련됐다. **부산 천불정사**는 8월 16일 부산 금정구청에 백미 1000kg과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으며, **부산 해인정사**도 12일 부산 사하구청에 쌀 100포를 전달했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대구 남구청을 찾아 쌀 130포를,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쌀 50포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방생 법회 및 문화행사도 열렸다. **고창 선운사**는 8월 12일 극락보전 앞 마당에서 천도재를 연데 이어 천도의식을 마치고 도솔제로 이동하여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천도의식을 마친 불자들이 연가마 및 반야용선을 앞세워 만들어낸 이운행렬은 장관을 연출했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는 8월 12일 백중회향을 맞아 승보공양 및 지화전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8월 12일 경내 지관전에서 '2022 세대공감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점심공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